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652

2015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전라남도 6차산업화 경영체 등 설문조사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선 석 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전라남도 6차산업화 경영체 등 설문조사 중심으로 -

Revitalization Methods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선 석 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전라남도 6차산업화 경영체 등 설문조사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성 훈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선 석 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석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최 종 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박 성 훈 (인)

위 원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 덕 기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

제2장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및 정책 ····· 4
제1절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 4
제2절 농업의 6차산업화 유형 ····· 6
제3절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 ····· 7
1.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 7
2.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7
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 8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9

제3장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현황 및 우수사례 ····· 11
제1절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현황 및 예비인증사례 ····· 11
1. 전남 농업 및 향토자원 현황 ····· 11
2.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현황 ····· 13
제2절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사례 ····· 19
1. 보성군 보향다원 ····· 19
2. 고흥군 에덴식품 ····· 22
3. 나주시 명하햇골 ····· 23
제3절 외국의 6차산업화 사례 ····· 25
1. 일본 사례 ····· 25
2. 중국 농업산업화경영의 사례 ····· 30
3. 대만 농업 6차산업화 지역사례 ····· 31

제4장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통계적 분석 ····· 33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통계분석 방법 ····· 3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통계분석 및 해석 ····· 3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33
2.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 ····· 35
3. 6차산업화의 과제 ····· 38
4. 6차산업화 목표/방향/사업 ····· 41
5.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 48
6. 요약 및 시사점 ····· 52

제5장 전남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방안 ····· 53
1. 규제완화 및 철폐를 통한 활성화 ····· 53
2.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및 사업 활용도 제고 ····· 53
3. 6차산업 수익 창출 모델 개발 및 육성 ····· 54
4. 맞춤형 컨설팅 및 판로지원 ····· 55
5. 6차산업 창업 리더양성 및 미래성장산업화 ····· 55

제6장 요약 및 결론 ····· 56

참 고 문 헌 ····· 5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Ⅱ-1>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 8
<표 Ⅱ-2>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9
<표 Ⅲ-1> 향토자원 유형 ····· 12
<표 Ⅲ-2> 전남 산업화 자원 유형 ····· 12
<표 Ⅲ-3> 전남 향토자원 농산물의 세부유형 ····· 12
<표 Ⅲ-4> 2014년도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총괄 ····· 13
<표 Ⅲ-5>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유형 ····· 14
<표 Ⅲ-6>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자본금 ····· 14
<표 Ⅲ-7>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매출액 ····· 15
<표 Ⅲ-8> 전남 예비인증 사업체 종사자 수 ····· 15
<표 Ⅲ-9>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의 애로사항 ····· 15
<표 Ⅲ-10> 보향다원의 일반현황 ····· 20
<표 Ⅲ-11> 에덴영농조합의 일반현황 ····· 22
<표 Ⅲ-12> 명하햇골의 일반현황 ····· 24
<표 Ⅳ-1> 응답자 현황 ····· 35
<표 Ⅳ-2> 그룹별 6차산업화 추진의 장점(복수응답) ····· 37
<표 Ⅳ-3> 그룹별 농업 6차산업화 중 1차산업의 과제(복수응답) ····· 39
<표 Ⅳ-4> 그룹별 농업 6차산업화 중 2차산업의 과제(복수응답) ····· 40
<표 Ⅳ-5> 그룹별 농업 6차산업화 중 3차산업의 과제(복수응답) ····· 41
<표 Ⅳ-6> 그룹별 6차산업화를 위한 우선적 추진과제(복수응답) ····· 43
<표 Ⅳ-7> 그룹별 전남도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 46
<표 Ⅳ-8> 그룹별 농식품부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 47
<표 Ⅳ-9> 그룹별 정부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업(복수응답) ····· 48
<표 Ⅳ-10> 그룹별 필요한 컨설팅 분야 ····· 49
<표 Ⅳ-11> 6차산업화 활성화 요인 ····· 5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Ⅱ-1> 6차산업화의 개념 ····· 4
<그림 Ⅱ-2> 6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 ····· 5
<그림 Ⅱ-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추진전략 ····· 9
<그림 Ⅲ-1> 보향다원의 6차산업화 추진내용 ····· 21
<그림 Ⅲ-2> 에덴식품의 6차산업화 추진내용 ····· 23
<그림 Ⅲ-3> 명하햇골의 6차산업화 추진내용 ····· 25
<그림 Ⅲ-4> 오이타현 농촌민박 인증마크 ····· 29
<그림 Ⅳ-1> 응답자의 구분 ····· 34
<그림 Ⅳ-2> 바람직한 6차산업화 형태 ····· 36
<그림 Ⅳ-3> 농업 6차산업화 추진의 장점 ····· 37
<그림 Ⅳ-4> 농업 6차산업화 중 1차산업의 과제 ····· 38
<그림 Ⅳ-5> 농업 6차산업화 중 2차산업의 과제 ····· 39
<그림 Ⅳ-6> 농업 6차산업화 중 3차산업의 과제 ····· 41
<그림 Ⅳ-7> 전남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우선적 추진과제 ····· 42
<그림 Ⅳ-8>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목표 ····· 44
<그림 Ⅳ-9>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바람직한 유형 ····· 44
<그림 Ⅳ-10>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기본 방향 ····· 45
<그림 Ⅳ-11> 전남도 추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 45
<그림 Ⅳ-12> 농식품부 추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 46
<그림 Ⅳ-13> 정부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부문 ····· 48
<그림 Ⅳ-14> 필요한 컨설팅 분야 ····· 4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Revitalization Methods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un, Seok Min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Hoon Park)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Recently, Korea's rural areas are struggling to reduce aging and to increase farm income. In this situation, should provide a way to add value to the fusion of the secondary industry and tertiary industry to agricultur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has also increased employment effects of aging people and women, as well as an increase in regional income.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of Jeollanam-do agriculture area's status and best practices. Through surveys and statistical analysis have research the Sixth industrialization Revitalization. As a result,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s needed, such as deregulation and funding. Also include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market support is required.

Key Words : Sixth industrialization, revitalization methods, supportive industry, value proposition, business models, direct exchange transaction, best practices of Sixth industrializati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맞물려, 국내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농업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에 따른 시장개방, 농가소득구조의 변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이 최근 농업·농촌의 해결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권용덕, 2014).[1] 농업의 6차산업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1차산업인 농업 생산부문에 2차, 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소득증대 및 고용 등을 창출하는 전략을 말한다. 6차산업화는 1차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므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경영 다각화 및 도농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령농 및 여성 등의 인력을 활용하므로 고용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각 지역에서 6차산업화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윤정(2013)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농촌의 부족한 인력문제 해결과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강·웰빙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식품·먹거리 등에 대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추세이며,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농업의 6차산업화가 신성장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관광·휴양을 융·복합화한 6차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13년 6월) 및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13. 10)하였다. 그에 이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5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6월 3일 제정되어,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 및 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업무계획 및 보도자료).

그러나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고 얼마 되지 않은 탓에 부실한 자료와 기술수준으로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영세한 농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의 우수사례 및 설문자료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1) 6차산업화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이 제정되어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김태곤・허주녕,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남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의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전라남도는 농업 6차산업화 관련 지원센터를 2014년 5월에 개소하여 타 시도보다 출발이 늦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남의 농가인구 고령화와 영세성, 소득격차 등으로 농촌의 활력이 쇠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전남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가 요구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전라남도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예비인증 사업자 현황과 전남의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및 외국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의 6차산업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조사 및 분석을 전남도의 시도관련공무원, 업체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6차산업화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등을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과 유형,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예비인증 현황을 기술하고 전남지역 우수사례, 외국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전남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과제 및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Ⅴ장에서는 우수사례 및 통계분석에 대한 시사점으로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차산업화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논의 된지는 몇 년 안팎이며 그간 관련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6차산업화 관련 문헌들은 대부분이 2010년 이후인데, 이는 최근들어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관련한 연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6차산업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강승진(2012)은 일본은 영세규모의 고령·여성농가의 경우 규모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대안으로 조직화에 의한 6차산업화가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일본의 농산어촌 6차산업화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6차산업화법 제정과 지원, 일본 농업·농촌 부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략, 6차산업화 300억엔 펀드 조성, '6차산업화 인재육성 전국추진기구'설립, '먹을거리(食)에 관한 미래비전' 등을 시행하고 있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농정 예산내 6차산업화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고, 일본 6차산업화의 유사모델 사례를 유형별로 나타내었다. 제주의 시사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6차산업 전담부서 설치, 6차산업 지원조례를 제정, 제주형 6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곤 외(2011)는 6차산업의 개념과 유형과 중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6차산업화 실태를 알아보고 평가하였다. 신전친환경영농조합, 순천농협 직영농장, 가천다랭이마을, 회룡포 여울마을(경북 예천군 용궁면)등이 있으며, 마을공동체회사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를 평가하였다. 6차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힘을 이끌어내며 농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리더의 육성,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박시현(2013)은 농촌 6차산업화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득화하려는 전략이고, 농촌관광은 농촌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고용 없는 저성장'에 유효한 고용 창출 대안이며, 농촌관광 산업화를 주도할 경영인(기업가) 육성이 핵심 과제라고 하였다. 향후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과 과제로 농촌관광 산업화의 조직으로서 사업자단체 육성, 보험·온라인 예약 및 결제 시스템 등 관광산업의 기반 정비, 농촌관광 컨설팅 등의 지원 체제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장덕기(2013)는 로컬푸드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지역농업/식품/외식산업과의 연계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판장 활성화를 통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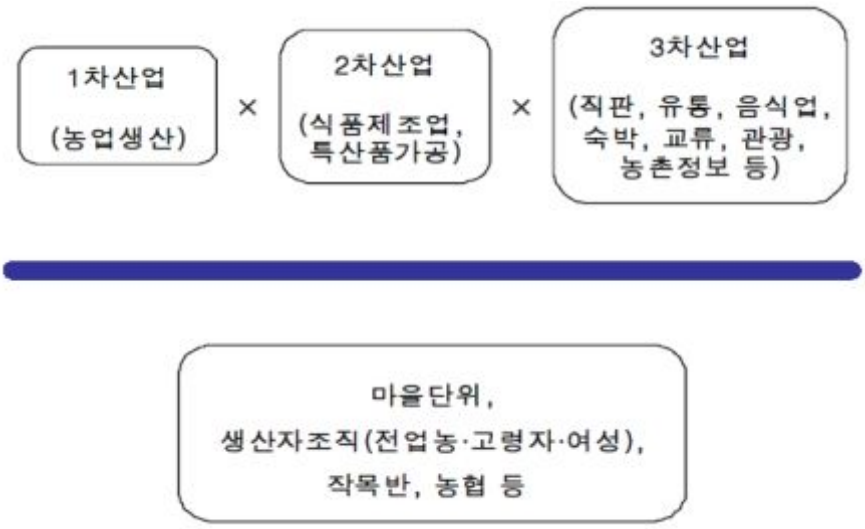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및 정책

제1절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농업의 6차산업은 각 지역의 향토자원, 특화자원 등을 바탕으로 1차는 농산물 생산, 2차는 가공·유통, 3차는 관광·휴양·레저·체험 등으로 이들을 융·복합화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러한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촌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3차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 및 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개념인 농공상 연대[2]와 상생협력[3]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4].



자료 : 김태곤·허주녕(2011).

<그림 Ⅱ-1> 6차산업화의 개념

6차산업화는 단순히 1차, 2차, 3차산업을 합한 의미가 아니라, 이들 산업의 유기적인 융·복합화(1차×2차×3차산업=6차산업)를 의미한다. 이때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을 하지 않고,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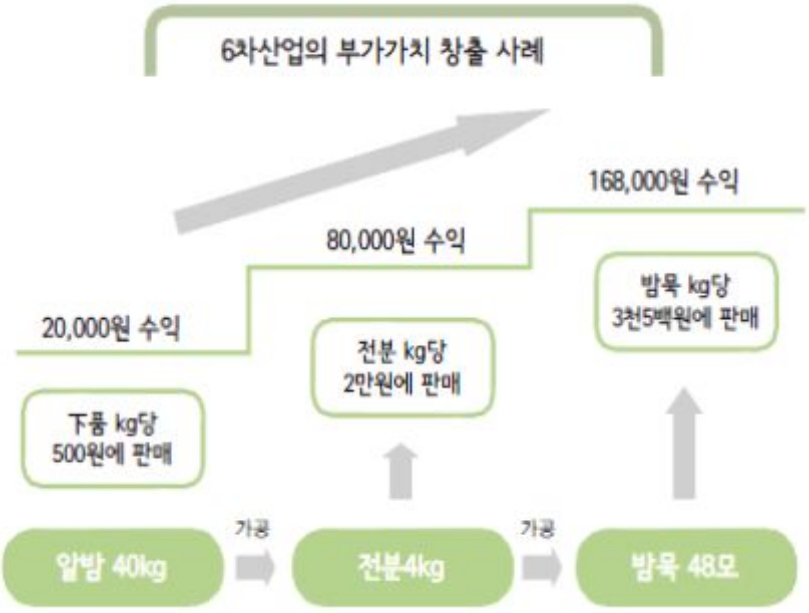
2) 농업과 공업·상업이 직접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각각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활동
3)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활동
4)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지원 홈페이지(www.6차산업.co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차산업만을 본다면 0×2×3이 되어 6차산업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1·2·3차 산업이 종합적으로 곱해져야만 농촌활력을 부르는 6차산업이라 할 수 있다(김태곤·허주녕, 2011).

6차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한 예로 아래 그림 <Ⅱ-2>을 보면, 下품인 알밤 40kg을 20,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냈다면, 가공을 거치게 되면 전분 4kg을 80,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분을 밤묵으로 만들어 밤묵 48모를 168,000원의 수익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시설 및 시간 등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고, 가공품이 판매가 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5].



자료 : 서윤정(2014).

<그림 Ⅱ-2> 6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

농업·농촌 지역단위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인 문제인 식량위기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안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농업의 자급률을 늘리고 자국 농업의 유지를 위해서도 농업활성화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농업구조가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고, 일자리와 소득 등이 감소하고 있어 6차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이 요구된다(김태곤 외, 2013).

5) 서윤정(2014), 우리나라 6차산업 전개과정과 추진전략, 농업연감, 농축산신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는 이를 주도할 경영인 즉, 기업가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촌지역의 6차산업화는 마을 지역단위가 많은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판로확보가 원활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체(기업가) 경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6차산업화는 현재 농촌지역의 마을 단위의 시도가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나 농촌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인의 창조적인 수익창출활동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살리되, 개별 경영체의 관점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박시현, 20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도 포함).

제2절 농업의 6차산업화 유형

6차산업화에 대한 유형을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곤 외(2013)는 6차산업화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역공동체형인 커뮤니티형, 계약거래형인 프랜차이즈형, 농공상연대형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커뮤니티형은 지역단위 생산자 그룹이 생산부문에서 가공·판매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촌산간지역 등에서 소규모 생산에서 원재료의 가공이나 직판장 판매 등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직거래를 하거나 교류하여 판매함으로써 여성이나 고령농 등의 일자리 확대효과가 발생한다. 프랜차이즈형은 농업생산법인이나 기업 등이 다수의 영세농가와 계약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본부인 농업생산법인이 가맹점인 영세농가에 생산기술과 생산자재 등을 공급하고 생산물 판매를 보장한다. 네트워크형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농업 내부에서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으로 진출할 때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유형은 생산이나 가공기술, 유리한 판매망 등을 가진 농외사업체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이종산업간 연대방식이다.

그리고 황영모(2011)는 6차산업화 유형을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경제모델로 분류하였다. 이 모델은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사회적 경제모델은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6차산업화를 파악한다.

서윤정(2013)은 6차산업화의 유형을 지산지소형, 시장창출의 농·공·상 연대, 고부가가치 창출형 등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산지소형은 각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에서 소비·가공되고,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지역내에서 생산자와 가공업자, 소비자가 상호연계되어 있거나 일치하는 유형을 말한다. 지산지소 유형은 사업추진 주체에 따라 농업인 사업 다각화형, 산업제휴네트워크형인 농·상·공연대형, 복합형 등 3가지 지산지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농·공·상 협력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수요처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모델로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와의 제휴하는 유형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6차산업의 유형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사업, 체험관광 사업으로 전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직판장이나 외식사업도 주목받고 있으므로 제품기술, 생산기술, 마케팅기술 등이 융·복합되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

1. 농림축산식품부「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2013.7.)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계획으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17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 및 농가의 농외소득 연평균 증가율 7.5% 달성, 고령농·여성 등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 매년 5천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6차산업화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초기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하고, 6차산업화의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한다. 그리고 은퇴전문가 기술·경영 고문제를 도입, 단체급식 및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본·기술부족 및 판매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태펀드, 농협 등에 전문매장·해외안테나숍 설치 등을 시행한다.

그리고 6차산업화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사업 추진시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와 농과계 학생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시·군의 6차산업화 계획수립을 추진하며, 소규모 식품·가공 시설기준 조례 제정을 유도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2017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4.10.)

새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등 농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 농산물 물가·수급안정, 가족농 육성, ICT·BT 융합 및 6차산업화 등을 시대의 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로 선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경제의 저성장, 고용률 저하 및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 농업에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활력이 요구되므로 첨단기술, 새로운 지식·아이디어 분출, 융복합 지원 플랫폼 등으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어, 식량부족·기후변화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할 때 농업의 역할 축소와 정체성 상실이 우려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보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15년에는 광역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고, '17년에는 1천개의 6차산업화 주체를 육성하고, 50개소의 지역특화농공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로드맵을 보면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확대 등의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표 Ⅱ-1>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13~'14년	'15~'16년	'17년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13)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13) ○6차산업지구제 도입('14)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14)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15) ○백두대간 치유단지 조성('15)	○6차산업화 주체 육성(1천개) ○지역특화농공단지(50개소) ○자연휴양림(152개소) ○치유의 숲(34개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인용

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2014.11.19.)

농업을 ICT 융복합의 첨단기술 집약 산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산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2·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로컬푸드·직거래 등 신(新) 유통 확산, 농촌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농촌관광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2014.

<그림 Ⅱ-3>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추진전략

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4.6.3.)

우리나라 농업은 대외시장의 개방과 고령화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농업을 6차산업화로 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활력증진 도모를 꾀하는 노력이 일고 있다. 이에 2014년 5월 2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14년 6월 3일에 법률 제 12730호로 제정되었다[6].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Ⅱ-2>과 같다. 이렇듯 법률 제정과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2>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0호, 2014. 6. 3., 제정]
○ 제정이유 -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유통·관광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산업을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의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
- 농림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5년마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과 이에 대한 지원(제8조, 제23조).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신청하고, 지정된 곳에 대하여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법체처 자료를 재구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현황 및 우수사례

제1절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현황 및 예비인증사례

1. 전남 농업 및 향토자원 현황

전라남도는 현재 농가의 영세성 및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GRDP와 농가소득이 낮다. 경지면적은 '12년 기준 309천ha(전국 1,730ha)로 전국의 17.9%이지만, GRDP는 전국의 5.0%이다. 농가소득은 '12년 기준 26,229천원(전국 평균 31,031)으로 전국 평균보다 4,802천원 낮으며 전국 9개 도 중 8위에 그친다. 이 외에도 FTA가 전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한·미 FTA에 의한 연평균 피해액은 1,136억원, 한·EU FTA에 의한 연평균 피해액은 219억원이며, 한·중 FTA 발효 후 10년차에는 4,481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농업대국이면서 우리 농업과 생산체계가 유사하여 가격경쟁력이 높아 대중국 교역 증가로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확대될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FTA와 관련하여 FTA 대응 농업분야 T/F팀을 '12년 8월에 6개팀으로 88명을 구성하여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전라남도 품목별 피해 분석 및 대책수립과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체험 교육관, 유기가공식품 인증, 마을반찬사업 육성,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전남 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7].

또한 전남은 향토자원이 많은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농어촌 지역의 6차산업화 가능한 향토자원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11년 10월부터 '12년 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화 가능한 농어촌 부존자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13년 2월까지 보완조사를 하여 총 1,011개 중 전남이 166개로 경북에 이어 2위로 향토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농산물 자원에는 채소류가 29%로 가장 많았고, 특용작물 28%, 과수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지역별 자원을 국정과제인 '농식품 6차산업화 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시 우선 반영하고 국비예산 지원 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8].

---

7) 농림식품국 직원이 꼭 알아야 할 2014년 농정기본통계(2013. 12. 31. 기준), 전라남도 농림식품국.
8) '6차산업화를 위한 농어촌 향토자원 1,011점 발굴',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Ⅲ-1> 향토자원 유형

(단위 : 개, %)

소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기타특산물	무형자원	기타
1,011개 자원	644	101	61	43	63	75	24
100%	64%	10%	6%	4%	6%	7%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표 Ⅲ-2> 전남 산업화 자원 유형

(단위 : 개, %)

소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기타특산물	무형자원	기타
166개 자원	89	11	20	8	14	19	5
100%	54%	7%	12%	5%	8%	11%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표 Ⅲ-3> 전남 향토자원 농산물의 세부유형

(단위 : 개, %)

소계	과수	특용작물	일반작물	채소류	화훼
89개 자원	22	25	13	26	3
100%	25%	28%	15%	29%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전남은 6차산업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를 2014년 5월에 전남발전연구원에 개소하여 운영중이다. 이는 2015년에는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기존사업을 개편·확대할 계획이며, 6차산업화 지구조성, 컨설팅, 6차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등으로 전남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남은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더 우위에 있는 향토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원의 체계적 추진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현황

'15년도 6차산업화 본 인증제 시행에 앞서 농촌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14년 6차산업화 예비 인증 사업자를 심사하여 인증하였다. 이러한 예비인증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자금, 컨설팅, 판로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시행되었다[9]. 다음 <표 Ⅲ-4>를 보면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가 57개소로 전국 379개소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8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진군과 영광군이 각각 6개소, 화순군·순천시·담양군·해남군·장흥군이 각각 4개소 등의 순으로 예비인증(1차·2차)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표 Ⅲ-4> 2014년도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총괄

시군	1차(상반기)	2차(하반기)	계
여수	2		2
순천	1	3	4
광양	1		1
담양	3	1	4
고흥	6	2	8
화순	3	1	4
강진	4	2	6
해남	2	2	4
영광	4	2	6
장성	2	1	3
곡성	1	1	2
진도	1		1
함평	1		1
무안	1	1	2
구례		1	1
장흥		4	4
영암		3	3
신안		1	1
합계	32	25	57

자료 : 전남의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 신청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9)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예비 인증사업자 심사결과(2014. 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 <표 Ⅲ-5>는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 정리한 자료이다. 이 표에서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4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 34.6% 차지한다. 전남지역은 개인농가보다는 법인형태의 경영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유형

	경영체 수	비율
영농조합법인	26	45.6
농업회사법인	18	31.6
개인·법인사업자	9	15.8
개인농가	3	5.3
기타(사단법인)	1	1.7
합계	**57**	**100.0**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전남 예비인증 경영체의 자본금은 100~200백만원 미만이 2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300백만원 미만, 500~1,000백만원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영체들의 약 50%가 100백만원~300백만원 미만의 자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체 수	비율
100백만원 미만	3	5.8
100~200백만원 미만	15	28.8
200~300백만원 미만	11	21.1
300~400백만원 미만	7	13.5
400~500백만원 미만	3	5.8
500~1,000백만원 미만	9	17.3
1,000백만원 이상	4	7.7
합계	**52**	**100.0**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전남의 예비인증 사업자 매출액은 100~500백만원 미만이 3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0~1,000백만원 미만, 1,000~5,000백만원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Ⅲ-7>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매출액

	경영체 수	비율
100백만원 미만	9	16.1
100~500백만원 미만	20	35.7
500~1,000백만원 미만	15	26.8
1,000~5,000백만원 미만	8	14.3
5,000백만원 이상	4	7.1
합계	**56**	**100.0**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의 상시 종업원 수는 5인 미만이 45.4%로 전남의 6차산업화 경영체의 규모가 영세함을 보여준다.

<표 Ⅲ-8> 전남 예비인증 사업체 종사자 수

	종사자 수	비율
5인 미만	25	45.4
5~9인	14	25.5
10인 이상	16	29.1
합계	**55**	**100.0**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Ⅲ-9>와 같다. 가장 많은 애로사항 분야로는 자금지원부분으로 가공시설 및 체험관련 시설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홍보·마케팅, 판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의 애로사항

시군	사업자	애 로 사 항	애로점 많은 산업부문	애로사항 분야
진도	J사	○판로가 원할치 못해 연중 가동률이 낮고 수출도 경쟁이 심함 - 물류비 지원	1·2·3차	홍보·마케팅
강진	C사	○농장노후화로 생산량 감소 - 현대화위한 자금조달	2차	홍보·마케팅, 판로, 자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홍보와 마케팅 부족 - 판로개척		
	D사	○기반시설 열악, 생산기계 부족, 종합가공 유통시설 및 체험공간, 마케팅·홍보 부족 - 기술개발 및 자금,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2차	시설지원, 홍보·마케팅
	J사	○안정적인 원료확보 어려움, 신제품개발 규제로 설비 및 기계 장치어려움 - 지리적 접근성	1·2·3차	규제
곡성	MS사	○농가가 가공 및 외식 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나 자금 확보 어려움 - 6차산업화 예비인증업체의 경우 신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확보 필요 ○2차 운영관련 자금 확보가 용이 ○외식 및 체험장을 갖출 수 있는 시설자금과 초기 운영자금 등 지원	3차	자금
	ML사	○체험 관광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엔저로 인해 대 일본 수출을 지원 ○공장 건립 자금지원	2·3차	자금, 수출
무안	P사	○생산시설 노후화로 시설지원이 필요하고, 가공관련 기술력 노하우 미흡 - 전문 기술 컨설팅 및 체험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1차	시설지원, 홍보·마케팅
	D사	○노동연령 노령화로 생산부분 휴경, 유휴노동력 부재 상품화 어려움 - 귀농귀촌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착 등 지원, 기술개발 및 컨설팅, 소비자 홍보·교육	1차	인력, 홍보·마케팅
장흥	J사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자금문제 ○생산현장에 맞는 현지인의 전문 인력양성 및 인력수급문제 ○현지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해 타 지역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홍보 및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문제 ○유기농산물 공급확대 및 계약재배 활성화 ○소비자 소비행태에 따른 맞춤식 직거래 장터 활성화 ○판로 확대에 따른 마케팅 및 홍보(수도권 공략)	2·3차	자금, 인력, 홍보·마케팅
	S사	○유기농 원료의 제조 분량의 구매자금 부족 ○진공포장기술 과 신제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이를 수 있는 시설 확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마케팅 및 판로지원 ○FDA등 해외 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	3차	자금, 수출
	S사	○휴업중인 군단위의 시설물을 보수하여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면 시설물의 흉물화를 막고 재탄생 시키는 일거양득	3차	시설지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효과		
	C사	○고령화로 인력 부족, 수작업생산으로 대량생산의 어려움 - 체험 고객이 주로 서울 경기도 지역이 70% 차지하여 1박2일 체험 숙박이나 단체체험 시설이 미비 및 운영 전담요원이 필요 - 지역간의 체험 네트워크 구성	3차	인력, 홍보·마케팅
곡성	M사	○자금확보 어려워 6차산업화 예비인증업체에 대해 신용자금 운영 요망 ○2차산업 관련 규제완화 ○체험 시설 자금 및 초기 운영 자금 지원, 외식시설 자금과 초기 운영 자금지원	3차	자금, 규제
	G사	○수출 어려움 해소 지원 ○가공공장 건립 자금지원, 체험관광 유치 및 인력지원	2·3차	수출, 자금
신안	D사	○함초의 가치 평가 제고, 기술개발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지정 건의, 해외수출 상품으로 육성 요망	3차	수출
구례	U사	○운영 자금	1·2·3차	자금
장성	B사	○소량·다품목, 생산 체험에 따른 인허가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 요망	2차	규제
	Y사	○가공 시설 확장에 대한 자금 대출 제한, 가공체험시설 자금확보 문제 - 학생대상 체험 홍보·마케팅 필요	2·3차	자금, 홍보·마케팅
여수	H사	○홍보·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자금 확보 어려움	3차	홍보·마케팅, 자금
	S사	○식품위생 관련 제약사항으로 규제 완화	2차	규제
영광	MR사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규제 및 과태료 감면문제 해결 희망, 지나친 환경규제로 경쟁력 약화 ○2차생산 시설지원, 의무 HACCP 면제 및 대체방안 마련, 체험프로그램의 수익은 지역민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됨에도 부가세 감면 방안 마련되지 않음	3차	규제
	U사	○홍보마케팅 부족,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기준의 제품 검사비용 부담 - 공동분뇨처리시설 필요, 체험장 자금 지원	3차	홍보·마케팅, 자금
	G사	○환풍 및 닥트작업 필요, 친환경 인증 도움 필요, ○제조업 등록 규제 완화 요청, 건조기 및 저장 시설 등 가공장비지원 절실,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마련	2차	규제, 시설지원
	D사	○공급 및 원료 가격의 보조금 지원, 시설 현대화 및 담보력 부족 - 농식품업체 특별 지원 대책, 홍보 및 판매 지원,	3차	자금, 홍보·마케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숙박 시설 필요		
	MS사	○원재료 확보를 위한 자금 부족으로 운영자금 절실 - 홍보와 마케팅으로 유통 판로지원	3차	자금, 판로
	M사	○판로에 대한 어려움 해소 위해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간소화 품질관리 기준의 지원	2차	판로
고흥	C사	○홍보를 위한 대형 유통사와의 연계, 테스트 매장 지원, 자금확보를 위한 금융대출 지원	3차	판로, 자금
	E사	○원재료 구입 자금조달, 제품의 판매처 결정이 어렵고 인력부족	3차	자금, 판로, 인력
	P사	○원료확보 위해 계약재배 확대, 시설설비 자금 지원, 홍보·마케팅 자금지원	1·2·3차	자금
	CS사	○생산기술 노하우, 제품개발 실험실 부족, 홍보·마케팅	3차	시설지원, 홍보·마케팅
	ED사	○친환경 재배 과일의 소비자 정보제공 및 홍보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로 제품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기술 이전으로 제품화필요 ○힐링 할 수 있는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3차	기술개발
	H사	○기후변화 및 수매기간 단축으로 품종개량 ○생산 공정 및 위생 설비투자 지원 ○수출증대 홍보마케팅 지원	1·2차	수출, 자금
	S사	○원물구입자금, 현대화 시설 기술, 기계설비 지원, 홍보·마케팅 경영컨설팅 필요	3차	자금, 시설지원, 홍보·마케팅
광양	M사	○1·2·3차가 한곳에 집약되어 있어야 인건비와 생산비도 절감되고 시너지효과가 있으나 규제(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문화재보호규역) 때문에 1차, 2차, 3차가 거리(1㎞-10㎞)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 어려움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번 법개정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된 규제완화 필요. ○농업체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 되지 않으면 규제완화가 된 6차산업 관련법도 큰 효력 없음	2·3차	규제
순천	S사	○잘 가공된 상품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 운영상 큰 어려움 - 홍보·마케팅과 판로에 대한 지원 필요	1·2차	판로, 홍보·마케팅
	H사	○디자인개발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홈페이지 관련 온라인유통 지원 ○안정적인 원료콩수급 및 구매자금 필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홍보 판로개척	1차	자금, 판로
	D사	○판로가 어려워 체험관광과 힐링 체험을	2·3차	판로, 자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병행하고자 하는데 시설자금 많이 소요 ○판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매장 저리지원 자금 필요 ○새로운 제품 등 경영다각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필요		기술개발
	HI사	○유통망 확보와 판로문제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방안 마련	3차	판로
화순	S사	○원료구매자금 확보, 정책자금 직접 대출지원, HACCP 시설 자금대출, 수도권체험단 유치 홍보, 젊은 층 대상 신상품 기술개발 지원	2·3차	자금, 기술개발
	N사	기반시설 열악, 원료확보	1차	기술개발
	SS사	○운영자금 조달, 생산인력 부족, 원물구매 자금 부족, 6차산업 보조금 전무 및 은행융자 어려움 - 홍보·마케팅지원이라도 보조 필요	2·3차	자금, 홍보·마케팅
	Y사	○인건비 부담 및 인력확보 어려움 - 홍보·마케팅 직원, 민박신축 자금지원	1·3차	홍보·마케팅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재구성함.

제2절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사례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에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10개소 선정하였다. 이 경진대회는 6차산업화 성공모델을 발굴·전파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별 경진대회를 거쳐 선별된 51개의 사례를 서면과 현장심사로 16개 사례로 선정하였고, 공개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10개소 가운데 전라남도에서는 보성 보향다원(금상), 고흥 에덴식품(은상), 나주 명하햇골(동상) 등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해 소개하겠다.

1. 보성군 보향다원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위치한 보향다원은 1차 농산물은 찻잎 생산, 2차 가공품은 금차(발효차, 녹차)와 유기농 차(발효차, 녹차)가 있으며 3차 산업으로는 제다 체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농업의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보향다원은 녹차를 활용한 차, 화장품, 초콜릿 생산 등으로 5대째 이어온 전통 있는 다원(茶園)이며, 제다 체험장 활용으로 국내 차 산업의 6차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Ⅲ-10> 보향다원의 일반현황

구 분	내 역
상 호	농업회사법인 ㈜보향다원
설 립 연 도	2007. 11. 1(법인전환 2013.12.26)
생 산 품 목	유기 금녹차, 유기 금발효차, 유기 녹차 등 3품목 10종류
매출액 및 총자산	매출액 : 321백만원, 총자산 424백만원(자본금 : 271백만원)
주 거 래 처	호텔신라, 플라자 호텔 등
지 적 재 산 권	국내외 특허 및 상표권 4종 보유
인증 및 지정서	유기가공식품인증, 국제유기인증(EU,JAS,USDA), 할랄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군수품질인증, ISO9001, 우수체험공간지정, 남도미향
종 업 원 수	7 명(상근 3명, 일용 4명)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보향다원의 1차산업으로는 차 재배가 있는데, 면적은 56,507m^2(5.7ha)으로 국내 최초로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과 국제인증(미국, 일본, 유럽)을 받았으며, 세계 최초로 금차를 개발해 전량 자가 생산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7.5톤~10톤이 된다. 생산된 녹차는 크게 유기농 차(발효차, 녹차)와 금차(발효차, 녹차)로 생산되며, 차 가공 이외에도 화장품, 음료, 초콜릿 생산 등의 2차산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3차산업으로는 제다 체험장이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1년 진로체험교육장으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에 농식품부가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였다. 제다 체험장 운영을 소규모로 운영해오다 2007년 농약파동이후, 차 문화 및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Ⅲ-1> 보향다원의 6차산업화 추진내용

현재는 연간 1만명 이상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규모가 성장하였고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가고 있다. 이렇듯 보향다원은 1차, 2차, 3차산업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6차산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공품을 구입해가고 재구매를 하여 보향다원의 회원으로 등록, 고정 고객으로서 차 구입시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윈윈하는 도농교류 상생의 효과를 보게 되어 별도의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해마다 전국 각지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6차산업화의 성공모델에 걸맞다고 할 수 있다.

보향다원의 성공요인에는 유기질 퇴비와 친환경 농법으로 차 농가 가운데 국내 최초로 유럽, 미국, 일본의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하여 안전성을 증명하였고, 해외 수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효차를 개발하였고 금녹차 개발에 성공하여 금녹차팩, 금녹차음료수, 금녹차화장품 등 금과 차의 효능이 결합된 다양한 고기능성 연관제품을 개발하여 차 산업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친환경 영농 정착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체험활동 강화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녹차만들기에 앞장섰다. 무엇보다도 체험을 한 소비자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고 VIP 마케팅으로 꾸준한 판매를 유도한 것이 성공요인이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분야로 5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도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고흥군 에덴식품

전남 고흥군 두원면에 위치한 에덴식품은 영농조합법인으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덴식품은 well-being 시대에 맞추어 무농약유자와 유기농설탕 원료만 고집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은 물론 할랄인증까지 득하여 해외 수출의 가능성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표 Ⅲ-11> 에덴영농조합의 일반현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재배작목	유기농 석류, 무농약 유자	가공식품	유기석류즙, 유자즙, 유자차 등
영농규모	42,387㎡ (석류 3.2ha, 유자 1ha) 유기농석류 시설하우스(12,712㎡)	면 적	부지 : 3,478㎡ 건물 : 2,307㎡
직 원	20명 : (정규직 12명, 일용직 8명)	영농경력	23년
저장시설	저장고 3동(132㎡ 2동, 99㎡ 1동)	일자리 창출	2,700명 ('12-13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현황	생산시설:차 라인14식, 즙 및 음료라인 7식(HACCP), 병 충진라인9식 홍보체험관 132㎡(유자차, 석류차만들기 체험)		
수상현황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프로젝트 추진(석류소득왕)수상 '13년 전라남도 농업인대상 수상(원예/특용작물 분야) - 전라남도지사 賞		
매 출 액	'11년 467백만원, '12년 1,122백만원, '13년 861백만원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에덴식품은 1차 생산, 2차 가공·유통, 3차 체험을 유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6차산업화의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1차산업으로는 유기재배로 자연순환 농법 바닷물 및 EM 깻묵액비 및 천연미생물재제, 친환경자제 등 체계적인 이용으로 유기농, 무농약재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재배농가(25농가)로부터 유기농석류를 18톤, 무농약유자를 300톤, 고흥유자연합회 친환경인증회원과 에덴농장에서 자체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 액상차, 과채음료, 분말류, 초콜렛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군 개발로 고흥 우수 농산물 이미지에 대해 홍보(차, 즙, 분말, 초코크런치, 비타)하고 있다.

2차산업으로는 납품 체결중인 전국 친환경매장(icoop생협, 자연드림, 초록마을, 두레생협, 행복중심 생협, 한 살림) 등 고정거래처 확보 및 GS리테일 영남, 한국유통인연합회, 오창농협 유통센터, (주)고흥군유통회사, (주)유기농산(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유기농코너 입점 등 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통하고 있다.

3차산업으로는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 교육이 체험농장 견학 등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장운영이 있는데, 유자/석류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대도시의 퇴직 및 젊은 사람들의 농촌 귀농 자립기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친환경 소비자 단체의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하여 15만 소비자회원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매년 친환경을 갈망하는 소비자단체의 방문으로 농산물수확체험(따기체험), 가공식품(차만들기, 초콜렛만들기), 공산품(천연비누 만들기), 농장견학 체험(농장둘레길, 농장견학, 가공시설 견학)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자와 석류 온난한 기후와 알맞은 해풍 등 지리적 영향으로 상큼한 향과 품질이 뛰어나 농산물도매시장과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매년 영농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일지를 기록하고 친환경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한, 자가 액비를 제조하여 유자와 석류재배에 투입함으로써 친환경 선진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다.

<그림 Ⅲ-2> 에덴식품의 6차산업화 추진내용

에덴식품의 성공요인은 현재의 웰빙·친황경 트렌드에 발맞춰 유기재배 및 친환경인증 등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샀으며, 전국의 친황경매장, 백화점 등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어 구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유자와 석류 등을 직접 재배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공체험 등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나주시 명하햇골

전남 나주시 문평면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인 (주)명하햇골은 쪽, 천연염색 의류, 악세서리, 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누 등을 생산하고 있고, 천연염색 체험과 교육 및 숙박을 하고 있다. 명하햇골은 명하쪽빛마을에 뿌리를 두고 주요 사업을 마을 거주 어르신(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주)명하햇골의 대표가 명하쪽빛마을의 마을 이장을 겸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과의 연계가 잘 되는 6차산업화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12> 명하햇골의 일반현황

구분	내 용
경 영 체 명	사회적기업 (주)명하햇골
설 립 연 도	2013년 2월 3일
생 산 제 품	쪽, 천연염색 의류, 악세사리, 비누 등
매 출 액	107.3백만원(2013년 기준)
직 원 수	11명(상근 7, 일용직 4)
시 설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전수교육관
마 을 특 산 물	쪽, 쌀, 양파, 마늘 등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 115호 염색장으로 선정된 윤병운 옹과 전수교육조교인 윤대중 관장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리고 2005년에 나주시에 천연염색문화관을 준공하고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10~2011년에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인 '천연염색전문인력양성'에 참여를 하였다.

명하공방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 (주)명하햇골의 1차산업으로는 명하쪽빛마을 쪽작목반이 있어 쪽 재배 및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쪽을 천연염색으로 제품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을 통해 의류, 가방, 열쇠고리 등 20여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차산업). 그리고 천연(쪽)염색 교육 및 체험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일반인 대상 체험 및 교육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촌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 숙박과 웰빙밥상 개발을 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3차산업). 이러한 6차산업의 성과로는 마을 주민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천연염색 교육 및 체험객 증가로 도시민 내방객이 증가하여여 도농간교류 활성화에 일조를 하였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간 업무협약과 재능기부 형태로 상호 지원을 하고 있어 6차산업화의 우수사례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Ⅲ-3> (주)명하햇골의 6차산업화 추진내용

제3절 외국의 6차산업화 사례

1. 일본 사례

가. 일본 오오야마(大山)농협[10]

일본의 오오야마 농협은 매실, 밤 등을 심어 '하와이 여행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으로 유명하며, 6차산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농협이다. 이 농협은 NPC[11]운동을 통해 매실, 밤나무를 심어서 농가경제를 부흥시키자는 소득증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여유와 풍요로운 인간, 서로가 격려하고 온화한 인격체, 그리고 오오야마를 낙원으로 만들자는 운동으로 주민 모두가 여유와 삶을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오오야마농협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소량 다품목 생산을 하여, 9개의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기농산물로 요리한 음식도 제공한다. 이는 주부들의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가정 전통요리를 농가식당에서 활용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고노하나 가르텐(오가닉농원+직매장, 매실 숙성 밑 가공품 판매장)운영으로 2013년 매

10) 현의송,『 6차산업을 디자인하라』, 책넝쿨, 2014를 참조 적성함
11) 제1NPC(New Plum and Chestnuts), 제2NPC(New Personality Combination), 제3NPC(New Paradise Commun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출액은 20억엔에 달하며, 연간 구매고객이 19만명으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직매장도 9개소를 개장하여 직영하고 있으며, 1990년 50명의 생산자로부터 시작된 농산물 직매장이 지금은 1,950명의 농가가 참여해서 680품목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연간 15억엔 판매하는 직매장으로 발전했다. 직매장 운영 방식은 판매수수료 15%를 공제하고 출하자에게 정산하며 오후 6시까지 팔리지 않은 농산물은 농가가 거둬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후계 조합장을 양성하는데, 조합장은 20대부터 NPC운동의 후계자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의 세일즈 활동을 20년 동안 담당했다. 20년 동안 세일즈를 하면서 360개의 거래처를 확보했고, 지금도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한다.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유통업체, 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액수가 10억엔 정도 된다. 이외에 시장 출하물량이 11억엔이므로 전체 판매 사업액은 고노하나 가르덴 매출액 20억엔을 포함하면 41억엔에 이른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과 신제품 개발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설음식을 준비하는데 힘들어 하는 것을 본 후, 설날 음식상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설상을 12월 31일에 주문받아 전 직원이 가정까지 배달하는 사업이다. 1년에 한번이지만 2억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수익금 약 1억엔은 50%는 농협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전 직원에게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몇 년 전, 한국 남부지역을 방문해 들에 있는 흑색미, 녹색미, 적색미 종자를 구해 일본으로 가져와 재배하여 고대미라 이름을 붙인 후 소포장판매로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고대미를 제분하여<고대미 빵>을 개발하여 고노하나 가르덴에서 좋은 판매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은 전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농촌이 NPC운동을 한 지 60년 동안 농가 호수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소득 측면에서 농가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농협의 제안으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근 농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4%정도 인데 비해, 오오야마농협은 26%나 유지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600명이며, 전체 직원 300명 중에서 신용 사업, 공제 업무 합해서 총 11명이 담당하고 있다. 농가가 자기 농협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서로가 신뢰 관계를 갖고 농협 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직매장도 오가닉 농가식당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6차산업화의 농장 : 후나가다 종합농장[12)]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 후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지역 중심산업이던 농업의 인력

12) 현의송,『 6차산업을 디자인하라』, 책넝쿨, 2014 를 참조 작성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타산업으로 유출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후나가다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1969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5명의 청년들이 모여 낙농중심의 공동경영농장 후나가다 종합농장을 설립하였으며, 농장의 목표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두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유)후나가다 종합농장과 가공·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주)밀크타운을 축으로 한 생명종합산업, 음식판매와 농업체험 등 교류사업을 하는 (주)그린힐과 꽃과 딸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교류시설인 (주)하나노우미를 축으로 한 공짜리조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경영을 기반으로 관광교류 공간 창출의 카리스마라는 명칭의 관광카리스마 상을 받았으며, 개장 때 1천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차후에 2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상근 고용인원 60명, 비상근 고용인원은 600명에 이르는 대규모농장으로 발전했으며, 생산중심에서 가공과 직접 판매 그리고 체험관광에 중점을 둔 농업으로 변신하여 총매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과소 농산촌지역인데도 소비자 중심의 기업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을 6차산업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치노에키사업도 1990년 농장 사장이 지역활성화 교류회에서 개념과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국토건설성이 정부 직할사업으로 민간인 아이디어가 불과 3년 만에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여진 사례이다.

농업을 주제로 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서 안전, 안심, 환경, 교육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 관광 교류를 통해서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만이 아니고 생명교육의 장으로 도시지역에 정보가 발신되고 있다는 점 등이 농업 6차산업화 의의가 깊이 묻어있다.

(유)후나가다 종합농장을 축으로 한 농산물을 종합 생산하는 1차 산업과 (주)밀크타운을 축으로 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주)밀크타운과 (주)그린힐 아트의 직판, 택배판매 등의 판매시스템과 농장개방 체험활동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을 축으로 한 3차 산업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6차 산업을 목표로 창업 이래 40년 동안 농업을 진화시켰다.

그리고 후나가다 종합농장이 일본 농업·농촌에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산간지역에서도 조직적 농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업의 핵심은 물론 농촌의 핵심도 형성하고 농업과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농업의 범위를 농산물생산과 같은 협의 생산중심 농업영역에서만 보지 않고, 도시 소비측 영역에서 요구되는 가공, 판매, 교류, 체험 등 폭넓은 시야에서 농업을 발상하고 행동으로 전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 셋째, 농업·농촌이 갖는 자원과 능력을 생산, 유통, 판매, 서비스로 사업화해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효시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넷째,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농촌교류를 그린힐아트의 사업과 무료 농장 개방을 통해 처음부터 이를 사업화한 점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즉, 생산주의적 협의의 농정에서 광의의 농정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회원제 농촌민박을 통한 6차산업화 : 아지므마치(安心院町) [13]

일본 농림수산성이 1992년 농촌 과소화, 고령화에 따른 농산촌활성화를 위해 그림투어리즘[14]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래 주목받고 있는 곳이「아지므방식」이라고 하는 회원제 농촌민박을 실천하고 있는 아지므마치이다.

아지므마치는 회원제를 도입하여 농촌문화 체험료를 숙박료로 받고 있다. 2002년 3월에 오이타현이「농촌민박을 여관업 법상 간이 숙소로 인가해, 농가 등이 손님과 조리하는 경우, 손님 전용의 조리장은 필요 없다」는 규제완화를 실시함으로써「아지므식 농촌민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농가는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농촌민박」을 실시할 수 있고, 참가하기 쉽다는 점이 아지므 독자적인「농촌민박」을 실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지므식 농촌민박」은 멤버스카드에 스탬프를 찍는 것으로, 회원이 된다는 시스템이지만, 그 캐치프레이즈는「1회 숙박하면 먼 친척, 10회 숙박하면 진짜 친척」참가자를 손님 취급하지 않고, 친척으로 생각하고 교류하려는 마음이 많은 도시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포도원을 통한 생산・가공・판매・축제・교류 체험 및 관광의 융복합사업추진으로 농촌민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6차산업형 그린투어리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생활・문화・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살려, 회원제 농촌민박, 자원활용, 경관보전 이벤트,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아지므마치 그린투어리즘연구회」[15] 구성, 1997년「그린투어리즘 실천선언 및 민・관공동의 아지므마치 그린투어리즘 추진협회」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 전국 최초로「그린투어리즘 추진계」를 설치하여 민・관 협동 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그린투어리즘 실천대학」을 개교하여 그린투어리즘의 담당자 육성과 지역에의 그린 투어리즘의 보급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에서는「식과 농촌민박」그리고 아지므마치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여러가지 전문 활동을 주된 핵심으로 하

---

13) 아지므마치 청취조사 및 내부자료. 青木辰司. 2004.「グリーン・ツーリズム實踐の社會學」, 丸善株式會社. 安心院마치グリーンツーリズム研究會. 2005.「心のせんたく」. vol.7-9.
장덕기, "일본형 회원제 농촌민박 경영 실태와 농촌진흥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2007.

14) 푸름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자연과 문화,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

15) 1996년 3월 발족되었으며, 회원제숙박시설로서 본 연구회가 운영하는 아지므방식을 나타내고, 1호당 1조 수용을 원칙으로 현재 연구회멤버는 농가 외에 현이나 정의 직원, 현지여관, 상공업자, 학자 등 300명이상에 이르고 있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다.

이러한 아지므마치의 그린투어리즘 특징으로는 농촌민박을 들 수 있는데, 농가에 숙박하면서 식사하는 등 모든 시간을 농가와 같이 보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농가의 보통생활을 하면서 향토요리와 교류를 만끽하는 농촌민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 도시민이 오랜만에 시골 친척을 방문하는 분위기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도 친척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도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아지므방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지므마치는 상시수용 가능한 농가가 현재 16호이지만 각각 농업·농촌 체험메뉴가 농촌민박을 핵심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선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촌민박 16호 모두 농박의 프로라는 의미의 인증서[16]를 교부하여 회원 농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신뢰감과 안심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림 Ⅲ-4> 오이타현 농촌민박 인증마크

아지므마치 농촌민박의 특징을 보면 다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아지므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각 농촌민박 모두 보통생활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 농촌민박별로 각각의 개성이 있고, 특색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보교환이 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하려는 의지가 강해 매년, 독일 농촌민박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인 효과측면을 보면, 농업생산체험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인구 증대를 도

16) 연구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과, 1일 1조 수용원칙 등 조건으로 연구회의 수용 노하우가 구비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農伯・推奨の証」교부하고 있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함으로써 농업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역농산물 직매소의 판매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17]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 연구회 활동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이 농가에게 자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 내외에서도 이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좋은 점을 전면에 나타내어 마음을 통한 교류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 점이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町)이 지속적으로 지원한 농업체험과 농촌민박경영 회원제 농촌민박시스템은 일본의 농촌민박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오늘날 오이타방식으로까지 명명될 정도로 농촌민박이 확산되고 있다.

2. 중국 농업산업화경영의 사례[18]

중국의 농업산업화 조직은 2012년 말 기준 총 30만 8700개이며, 이 중 선두기업은 총 11만여 개로 농산품과 가공제품은 농산품 시장 공급량의 1/3차지하고 주요도시의 장바구니 제품 공급의 2/3을 차지한다. 또한 2013년 6월 말 기준 농민전문합작사는 총 82만 8000개이며, 전체 농민수의 25.2%를 차지한다. 중국은 농업산업화 경영에 대해 농업의 새로운 경영주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육성하는데 지원을 돕고 있다. 중국은 소규모생산과 규모경영이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선두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가 농업산업화 시범기지를 마련하여 선두기업의 집적우위를 발휘하고 자원요소를 집약하여 농업산업화 기능을 강화하고 부대효과를 확대, 농민취업을 통한 수익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농업부는 총 76개의 국가 농업산업화 시범기지를 선정하였고, 2013년에는 77개의 시범기지를 인증했다.

2013년 3월에 「국무원의 농업산업화 선두기업 발전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중앙정부와 성정부가 농업산업화 사업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 선두기업과 농민이 긴밀한 이익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 기지건설기준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세수도 감면 및 면제로 배려한다. 또한 이익연맹을 구축하여 선두기업과 전문합작사간의 연계를 이끌고 있으며, 선두기업, 합작사, 농민의 시범모델을 통해 농업산업화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한 예로 티엔냥(田娘)이라는 기업과 합작사, 가정농장의 협력을 진행하여 2011년 회사

17) 2002년 교류인구 2,500인, 농산물직매소 판매액 2억5,000만 엔에서 2007년부터는 목표는 각각 5,000인, 5억 엔을 예상함.

18) 朱俊峰(2013), 「중국 농업산업화경영의 정책동향과 지역사례」,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자산총액은 7,200만 위안, 2012년 수입총액 7,785만 위안에 이른다. 티엔냥 기업은 정부지원정책을 확보하였고, 보조금, 대출 등의 여러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촌단위의 합작농장이 설립되면서 농민의 자발적 주식참여와 농촌경제합작조직 혹은 농업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농업생산경영활동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장주체가 되었다. 이들의 구성원은 농민이 중심이 되며, 여러 가지의 농촌경제합작조직과 농산품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이 말고도 합작사가 이끄는 마을종합발전모델, 전통 기업+농민 모델, 가정농장 업주의 파트너형 벼합작사 등 여러유형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농촌은 기업, 합작사와 연계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정책적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전략으로 농업에 대한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만 농업 6차산업화 지역사례[19)]

대만은 우수농업시행 전략의 철학으로서 대규모 경작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고 그를 통한 규모효과를 촉진한다. 또한 문화관광과 결합해 여가농업의 경영 발전을 촉진하고, 브랜드 농업을 통한 농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대만의 농업추진전략 중 로하스 농업추진 전략이 유명한데, 건강농업을 위해 유기농업, CAS우수농산품 및 TAP생산이력제 등으로 농산품의 품질을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신경영모델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브랜드를 구축한다. 또한 다원화된 판매루트를 확보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전자상거래와 특정 시장을 공략하기도 한다. 현지의 생산문화를 결합하고, 농촌의 미학과 관광여행, 우수농업제품판매, 농촌여행과 같이 소비자수요를 접목시켜 생산지의 특색을 갖춘 친구처럼 편안한 여행을 개발한다. 대만은 2009년 5월 행정원의 제3143차 회의에서 발표한 농업위원회의 「우수농업의 건강우량 방안」에서 우수농업을 고품질의 농업으로 명확히 정의하였고, 그 범위는 “건강·우량·로하스”농업으로 보고 있다. 2008년 대만의 우수농업 생산량은 942억NT$였는데, 2009년에 우수농업방안을 추진한 후 생산액이 974억NT$로 상승했다. 2012년에는 1,278억NT$로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수농업을 실시한 후 산업가치 성장률이 약 두 배정도 상승하였고, 이 중에서도 건강농업의 생산액은 우수농업 생산액의 최고 55~74%를 차지하고 있다. 우수농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만 중남부지역의 남투현의 SINYI Dream Works of the mei인수 후 메이즈 농민, 농민조합, 소비자 3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효과를 거둔 로하스 농업 사례가 있다. 다른 로하스 농업 사례로 SINYI TOWNSHIP FARMERS ASSOCIATION 하이자오 7호의 마라톤경기와 스토리와인을 들 수 있다.

19) 林辛君(2013), 「대만의 6차산업화 정책동향과 지역사례」,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대만은 '황금10년' 대만 로하스 농업추진전략 및 구체방안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형 농업을 "새로운 가치사슬농업"으로 확대하여 가치혁신+지역간 통합으로 대만 농업의 국제적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추진이념이다. 추진전략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만농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통합 및 가치발전을 하며, 식량안보 확보를 통한 농산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자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추진전략들을 살펴보면,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만농업의 글로벌화 추진은 농업서비스체계를 농업통계서비스, 농업경영전문지역에 대한 서비스환경 마련, 현대농업 민심 조사, 정보전송플랫폼, 국산소고기생산추적제도, 유기농산품인증보조제도 등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시장이 주도하는 산업가치사슬 구축과 함께 연관산업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에서 농업생산촌락 구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통합과 가치발전하는 것은 인력규모를 조정하고 농촌과 산업을 연계시켜 농촌의 재생을 추진하고 농촌생활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민 소득지원조치제도 마련과 농어 보험제를 추진하고, 농업의 자연재해구제강화 등으로 농민의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량안보 확보로 농산품의 안전강화 전략은 대만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다원화된 식량안보기제를 구축하며, 전통생산업을 최적화하고, 친환경, 방역검사강화로 농산물품질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농업자원이용 활성화를 통해 항구적인 발전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원화 발전 수요에 따라 농업가치사슬의 개념을 확대하여 농지이용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자원투자와 선업경제효과를 동시에 이루도록 한다. 또한 '황금구간'을 확대하여 고속철도 주변지하층의 심각한 함몰지역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서 에너지절약과 용수절약 등 고부가가치의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용수 품질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 및 재해축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통계적 분석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통계분석 방법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권역별 상담·설명회'가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총 2회에 거쳐 개최되었다. 설명회에는 전남에서 6차 산업화를 진행 중인 경영체, 농가와 관련공무원 등이 참가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실질적으로 6차산업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관심이 높은 좋은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97부를 수거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유효 응답자 기준으로 처리하여 총 173부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득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들의 비율을 분석하여 그래프(원, 막대)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5점 척도의 설문 문항들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고, 이 문항도 그룹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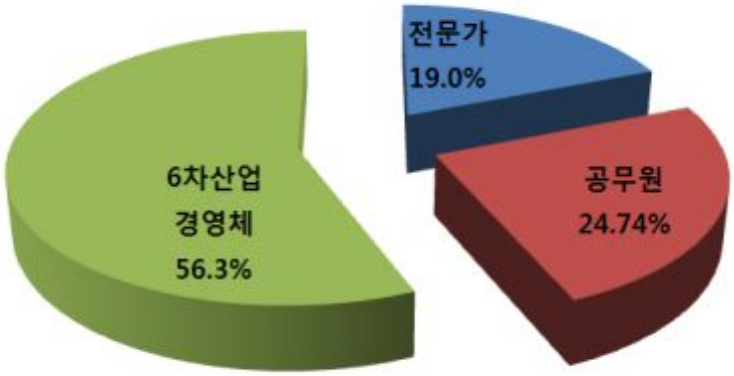
제2절 통계분석 및 해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중 직업 및 직무를 조사한 결과 173부 가운데 158명이 유의한 응답을 하였다. 이 중 6차산업 경영체는 56.3%, 관련공무원이 24.7%, 전문가가 19.0%의 비율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Ⅳ-1> 응답자의 구분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69.0%, 여성이 31.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40대(32.9%) 〉 50대(26.9%) 〉 30대(26.3%) 〉 30대미만(8.4%) 〉 60대이상(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은 대졸(64.3%) 〉 대학원졸업(15.3%) 〉 고졸(17.8%) 〉 중졸(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의 비중이 높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1> 응답자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16	69.0
	여	52	31.0
	합 계	168	100.0
연령	30대 미만	14	8.4
	30대	44	26.3
	40대	55	32.9
	50대	45	26.9
	60대 이상	9	5.4
	합 계	16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4	2.5
	고등학교 졸업	27	17.8
	대졸(전문대 포함)	101	64.3
	대학원 졸업	24	15.3
	합 계	157	100.0
직업/직무	6차산업 경영체	89	56.3
	공무원	39	24.7
	전문가	30	19.0
	합 계	1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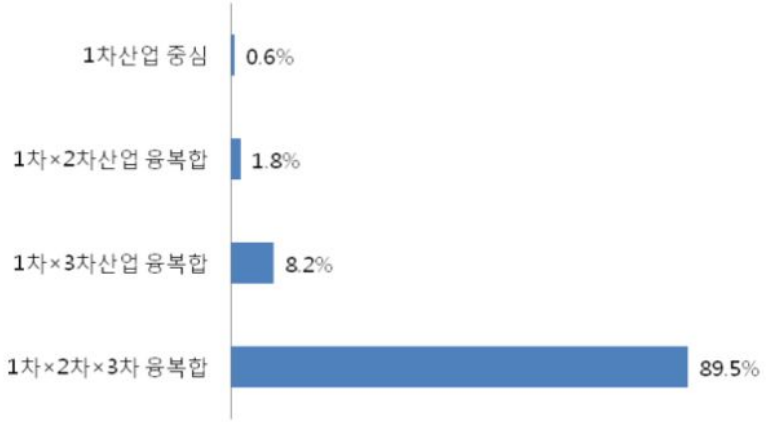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자료를 인용함.

2.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

농업의 바람직한 6차산업화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차×2차×3차 산업 융복합이라는 응답이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차×3차산업 융복합은 8.2%, 1차×2차산업 융복합 1.8%, 1차산업 중심 0.6%로 나타났다. 1차×2차×3차산업 융복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경영체 및 실무자들의 6차산업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6차산업화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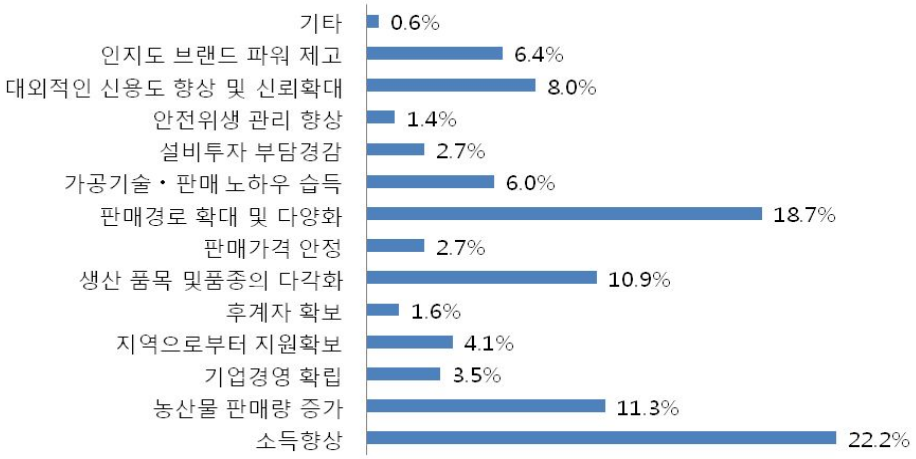
<그림 Ⅳ-2> 바람직한 6차산업화 형태

그 다음으로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이 주는 장점에 대한 응답이다. 이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향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경로 확대 및 다양화가 18.7%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봐도 소득향상이라는 응답이 경영체(22.8%), 관련공무원(23.9%), 전문가(18.4%)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농업 경영체나 공급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급 측에서는 소득향상과 유통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인지도 브랜드파워 제고나 대외적인 신용도 향상 및 신뢰확대 등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아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그림 Ⅳ-2>를 보면 1차×2차×3차 산업 융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6차산업에서 1차, 2차 뿐만 아니라 3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림 Ⅳ-3>에서는 3차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이 괴리를 지자체나 관련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Ⅳ-3> 농업 6차산업화 추진의 장점

<표 Ⅳ-2> 그룹별 6차산업화 추진의 장점(복수응답)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득향상	61	22.8	28	23.9	16	18.4	114	22.2
농산물 판매량 증가	28	10.4	13	11.1	11	12.6	58	11.3
기업경영 확립	14	5.2	2	1.7	1	1.1	18	3.5
지역으로부터 지원확보	8	3.0	5	4.3	7	8.0	21	4.1
후계자 확보	4	1.5	2	1.7	1	1.1	8	1.6
생산 품목 및 품종의 다각화	27	10.1	13	11.1	13	14.9	56	10.9
판매가격 안정	8	3.0	3	2.6	1	1.1	14	2.7
판매경로 확대 및 다양화	50	18.7	27	23.1	14	16.1	96	18.7
가공기술 · 판매노하우습득	10	3.7	13	11.1	4	4.6	31	6.0
설비투자 부담경감	10	3.7	-	-	3	3.4	14	2.7
안전위생 관리 향상	5	1.9	-	-	2	2.3	7	1.4
대외적인 신용도 향상 및 신뢰확대	22	8.2	3	2.6	10	11.5	41	8.0
인지도 브랜드 파워 제고	20	7.5	6	5.1	4	4.6	33	6.4
기타	1	0.4	2	1.7	-	-	3	0.6
합계	268	100.0	117	100.0	87	100.0	5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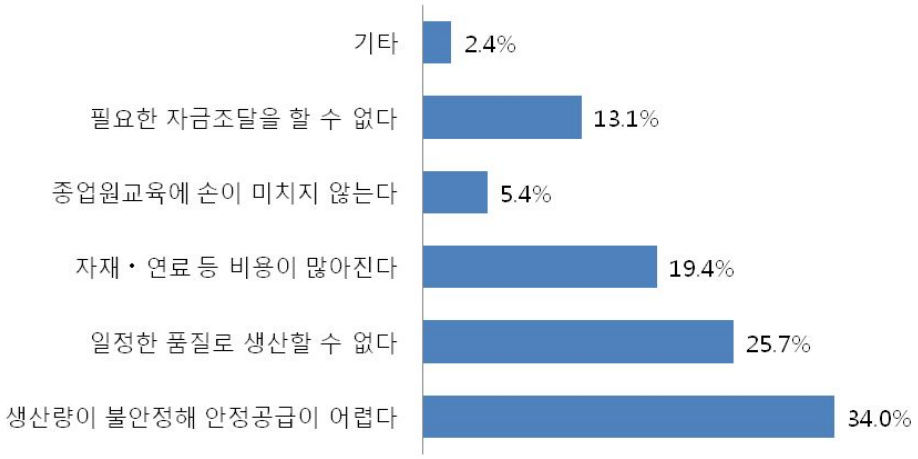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6차산업화의 과제

농업 6차산업화에서 1차(농산물 생산)의 과제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불안정해 안정공급이 어렵다'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한 품질로 생산할 수 없다' 25.7%, '자재·연료 등 비용이 많아진다'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봐도 '생산량이 불안정해 안정공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경영체(30.9%), 관련공무원(37.0%), 전문가(41.1%)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와 경영체간의 느끼는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차산업화의 경우 1차산업을 마을기업이나 농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을의 농가들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안정된 공급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농협에 수매를 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품질 또한 농협에서 관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마을의 작목반이나 마을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하나의 경영체나 마을기업 등을 만들어 공급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산량이 불안정해 안정공급이 어려운 점 이외에도 일정한 품질로 생산할 수 없는 점과 자재·연료 등 비용이 많아지는 점 등은 6차산업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림 Ⅳ-4> 농업 6차산업화 중 1차산업의 과제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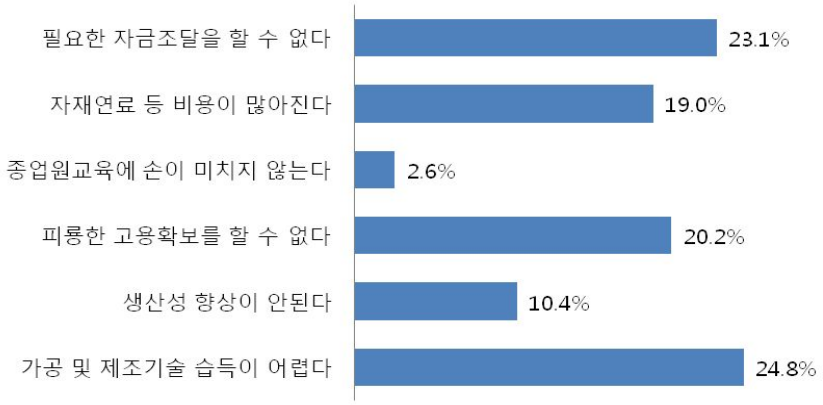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3> 그룹별 농업 6차산업화 중 1차산업의 과제(복수응답)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산량이 불안정해 안정공급이 어렵다	55	30.9	27	37.0	23	41.1	114	34.0
일정한 품질로 생산할 수 없다	41	23.0	20	27.4	20	35.7	86	25.7
자재 · 연료 등 비용이 많아진다	36	20.2	14	19.2	7	12.5	65	19.4
종업원교육에 손이 미치지 않는다	13	7.3	2	2.7	2	3.6	18	5.4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	27	15.2	9	12.3	4	7.1	44	13.1
기타	6	3.4	1	1.4	-	-	8	2.4
합계	**178**	**100.0**	**73**	**100.0**	**56**	**100.0**	**335**	**100.0**

농업 6차산업화에서 2차(가공품 제조)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공 및 제조기술 습득이 어렵다'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가 22.4%, '필요한 고용확보를 할 수 없다'가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6차산업 경영체와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6차산업 경영체에서는 '필요한 고용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응답이 25.3%로 2차산업(가공품 제조)의 가장 큰 과제로 나타났지만, 관련공무원은 '가공 및 제조기술 습득이 어렵다(34.7%)', 전문가는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27.6%)'로 각기 다른 문항을 선택해 이들 그룹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5> 농업 6차산업화 중 2차산업의 과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4> 그룹별 농업 6차산업화 중 2차산업의 과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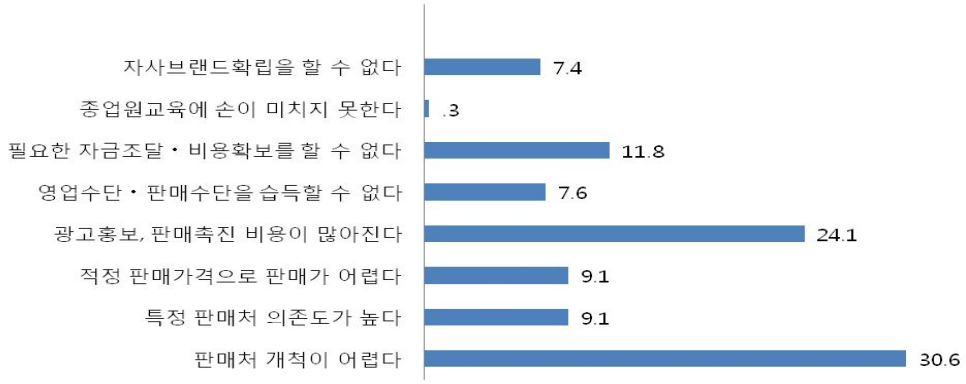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공 및 제조기술 습득이 어렵다	40	22.5	26	34.7	13	22.4	86	24.8
생산성 향상이 안된다	18	10.1	8	10.7	7	12.1	36	10.4
필요한 고용확보를 할 수 없다	45	25.3	8	10.7	9	15.5	70	20.2
종업원교육에 손이 미치지 않는다	6	3.4	1	1.3	-	-	9	2.6
자재연료 등 비용이 많아진다	29	16.3	16	21.3	13	22.4	66	19.0
필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	40	22.5	16	21.3	16	27.6	80	23.1
합계	**178**	**100.0**	**75**	**100.0**	**58**	**100.0**	**347**	**100.0**

농업 6차산업화에서 3차(제품의 판매)의 과제에 대한 응답은 '판매처 개척이 어렵다'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홍보·판매촉진 비용이 많아진다' 24.1%, '필요한 자금조달·비용확보를 할 수 없다'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봐도 '판매개척이 어렵다'는 응답이 경영체(31.5%), 관련공무원(29.9%), 전문가(29.8%) 모두 가장 높고 비슷하게 나타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전남의 6차산업화 예비인증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판로확보와 시설자금지원, 홍보·마케팅이 상위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입점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기준과 위생관리 등의 여러 난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또한 생산공정 및 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자금 등이 부족하여 6차산업화에 목표를 둔 경영체들의 어려움이 있고, 이를 지원할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 역시 좋은 상품을 보유하였으나 이를 홍보할 자금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경영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더라도 홍보나 마케팅이 되지 않는다면, 재고가 남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6차산업화의 활성화와 전남의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지원 등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설문조사,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Ⅳ-6> 농업 6차산업화 중 3차산업의 과제

<표 Ⅳ-5> 그룹별 농업 6차산업화 중 3차산업의 과제(복수응답)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판매처 개척이 어렵다	56	31.5	23	29.9	17	29.8	104	30.6
특정 판매처 의존도가 높다	15	8.4	7	9.1	6	10.5	31	9.1
적정 판매가격으로 판매가 어렵다	15	8.4	8	10.4	4	7.0	31	9.1
광고홍보, 판매촉진 비용이 많아진다	46	25.8	17	22.1	14	24.6	82	24.1
영업수단・판매수단을 습득할 수 없다	12	6.7	6	7.8	5	8.8	26	7.6
필요한 자금조달・비용확보를 할 수 없다	22	12.4	10	13.0	6	10.5	40	11.8
종업원교육에 손이 미치지 못 한다	1	.6	-	-	-	-	1	0.3
자사브랜드확립을 할 수 없다	11	6.2	6	7.8	5	8.8	25	7.4
합계	**178**	**100.0**	**77**	**100.0**	**57**	**100.0**	**340**	**100.0**

4. 6차산업화 목표/방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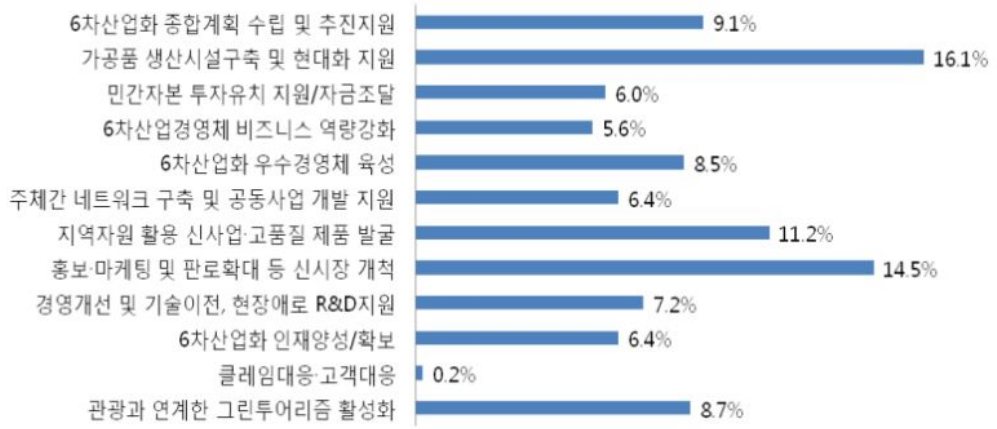
전남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추진과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가공품 생산시설 구축 및 현대화 지원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보·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 신시장 개척이 14.5%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전남 농업의 6차산업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판로지원 등 2차산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자체의 6차산업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융자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도움을 주고, 판로지원 등 홍보·마케팅에 관한 것은 6차산업화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나 전국단위의 6차산업화 경진대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돕고,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갖추어 문제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이지역의 농촌활력을 증진시키고 6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6차산업화를 위한 우선적 추진과제에 대한 경영체와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그룹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6차산업화 경영체는 가공품 생산시설구축 및 현대화 지원(18.1%)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관련공무원은 홍보·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 신시장개척(16.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질적인 6차산업화 경영체들의 니즈와 시군 등의 생각이 달라 효율적인 6차산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7> 전남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우선적 추진과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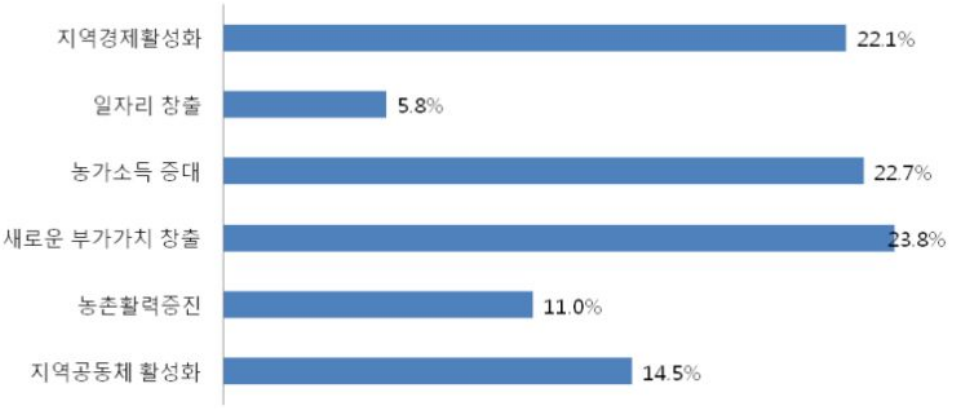
<표 Ⅳ-6> 그룹별 6차산업화를 위한 우선적 추진과제(복수응답)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차산업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지원	28	10.4	7	6.0	9	10.3	47	9.1
가공품 생산시설구축 및 현대화 지원	49	18.1	13	11.1	14	16.1	83	16.1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자금조달	15	5.6	6	5.1	5	5.7	31	6.0
6차산업경영체 비즈니스 역량강화	9	3.3	11	9.4	7	8.0	29	5.6
6차산업화 우수경영체 육성	20	7.4	15	12.8	4	4.6	44	8.5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개발 지원	17	6.3	7	6.0	9	10.3	33	6.4
지역자원 활용 신사업·고품질 제품 발굴	27	10.0	13	11.1	14	16.1	58	11.2
홍보·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 신시장 개척	40	14.8	19	16.2	11	12.6	75	14.5
경영개선 및 기술이전, 현장애로 R&D 지원	20	7.4	7	6.0	6	6.9	37	7.2
6차산업화 인재양성/확보	19	7.0	7	6.0	3	3.4	33	6.4
클레임대응·고객대응	-	-	-	-	1	1.1	1	.2
관광과 연계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26	9.6	12	10.3	4	4.6	45	8.7
합계	270	100.0	117	100.0	87	100.0	516	100.0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목표는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응답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농가소득 증대 22.7%, 지역경제활성화 22.1%의 순으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전남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6차산업화의 취지에 적합한 결과이다. 이는 6차산업 관련 경영체와 실무진이 6차산업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결과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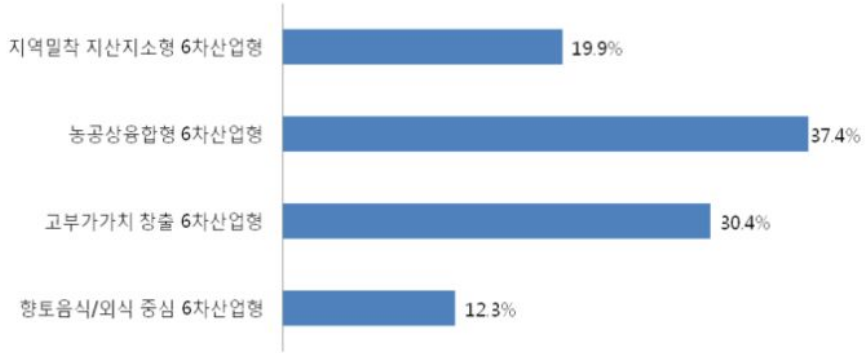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Ⅳ-8>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목표

전남 농업 6차산업화는 어떤 유형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농공상융합형 6차산업형이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형이 30.4%, 지역밀착 지산지소형 6차산업형이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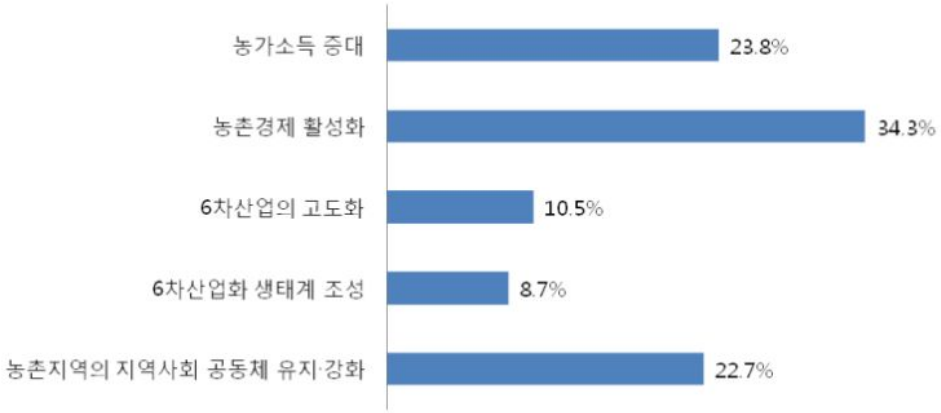


<그림 Ⅳ-9>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바람직한 유형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촌경제활성화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가소득 증대 23.8%,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강화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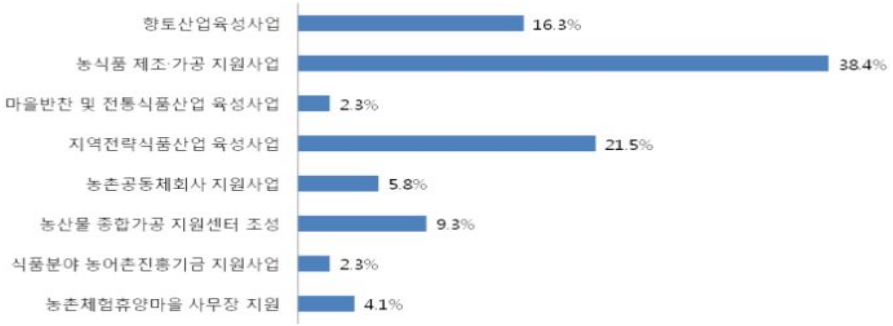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Ⅳ-10> 전남 농업 6차산업화의 기본 방향

전남 도 추진 사업 중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21.5%, 향토산업육성사업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Ⅳ-3>과 <그림 Ⅳ-7>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가공·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요구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룹간의 응답에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영체와 관련공무원의 응답은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이 각각 40.0%,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의 비슷했으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전남도에서나 각 시군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부처에서 6차산업화 제조·가공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체나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 이를 조금 더 보편적인 지원이나 정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촉구된다.



<그림 Ⅳ-11> 전남도 추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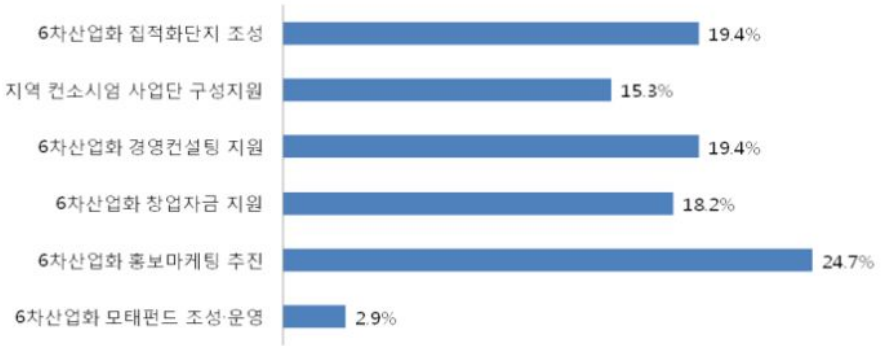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7> 그룹별 전남도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향토산업육성사업	16	17.8	8	20.5	3	10.3	28	16.3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36	40.0	16	41.0	8	27.6	66	38.4
마을반찬 및 전통식품산업 육성사업	2	2.2	1	2.6	-	-	4	2.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4	15.6	7	17.9	12	41.4	37	21.5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7	7.8	1	2.6	2	6.9	10	5.8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조성	11	12.2	3	7.7	2	6.9	16	9.3
식품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2	2.2	1	2.6	1	3.4	4	2.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	2.2	2	5.1	1	3.4	7	4.1
합계	90	100.0	39	100.0	29	100.0	172	100.0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사업 중 전남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6차산업화 홍보마케팅 추진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6차산업화 집적화단지 조성이 19.4%로 나타났다.

그룹별 응답에서 6차산업화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영체는 6차산업화 홍보마케팅 추진(26.1%),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22.7%)이 높게 나타났지만, 관련공무원은 6차산업화 집적화단지 조성(30.8%),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30.8%)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6차산업화 홍보마케팅 추진(34.5%),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지원(20.7%)이 높게 나타나 세 그룹간의 차이가 판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2> 농식품부 추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8> 그룹별 농식품부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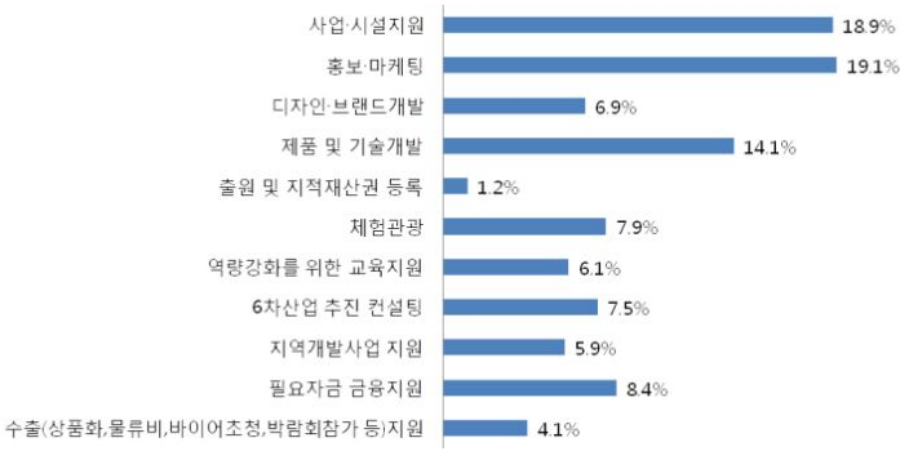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차산업화 집적단지 조성	16	18.2	12	30.8	4	13.8	33	19.4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지원	16	18.2	2	5.1	6	20.7	26	15.3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11	12.5	12	30.8	4	13.8	33	19.4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	20	22.7	5	12.8	3	10.3	31	18.2
6차산업화 홍보마케팅 추진	23	26.1	8	20.5	10	34.5	42	24.7
6차산업화 모태펀드 조성 · 운용	2	2.3	-	-	2	6.9	5	2.9
합계	**88**	**100.0**	**39**	**100.0**	**29**	**100.0**	**170**	**100.0**

전남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해 정부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홍보·마케팅이 19.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설지원 18.9%, 제품 및 기술개발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문항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설지원이나 홍보·마케팅 부분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는 6차산업화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세 그룹의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세 그룹 모두 필요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표 Ⅳ-8>에서는 응답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났다.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지원사업에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6차산업화의 구체적인 확대방향을 보면 판로확대라는 항목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 목적은 같으나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품 및 기술개발은 비용이 커 경영체들에게 부담이 가고, 제품의 포장 및 구성 등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한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Ⅳ-13> 정부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부문

<표 Ⅳ-9> 그룹별 정부지원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업(복수응답)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업 · 시설지원	54	20.5	17	14.5	13	14.9	96	18.9
홍보 · 마케팅	52	19.7	20	17.1	16	18.4	97	19.1
디자인 · 브랜드개발	17	6.4	10	8.5	6	6.9	35	6.9
제품 및 기술개발	32	12.1	16	13.7	18	20.7	72	14.1
출원 및 지적재산권 등록	1	.4	3	2.6	2	2.3	6	1.2
체험관광	25	9.5	10	8.5	2	2.3	40	7.9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12	4.5	13	11.1	3	3.4	31	6.1
6차산업 추진 컨설팅	21	8.0	10	8.5	4	4.6	38	7.5
지역개발사업 지원	12	4.5	6	5.1	12	13.8	30	5.9
필요자금 금융지원	27	10.2	7	6.0	6	6.9	43	8.4
수출(상품화, 물류비, 바이어초청, 박람회참가 등) 지원	11	4.2	5	4.3	5	5.7	21	4.1
합계	264	100.0	117	100.0	87	100.0	5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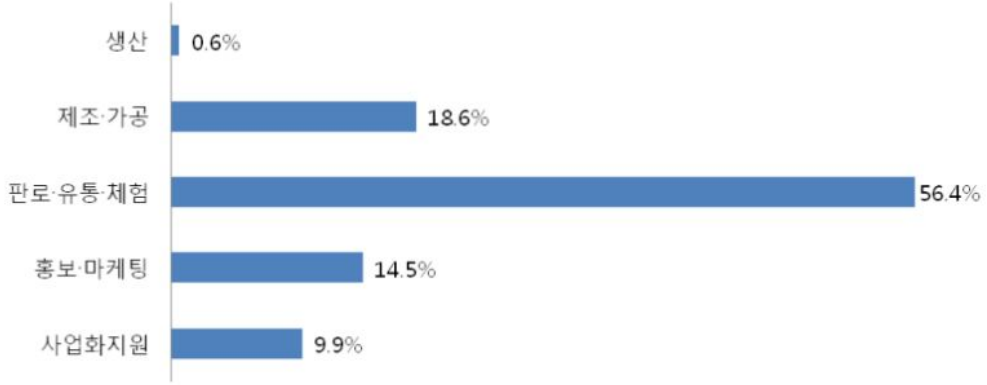
5.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전남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는 판로·유통·체험이 56.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가공 18.6%, 홍보·마케팅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 예비인증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조사[21]에 의하면 판로의 개척이 어렵다는 의견과 체험활동 시설부족,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며, 제조·가공시설은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고, HACCP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검사비와 시설 마련 비용이 커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를 6차산업화 예비인증사업자들에 대해 저리의 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6차산업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Ⅳ-14> 필요한 컨설팅 분야

<표 Ⅳ-10> 그룹별 필요한 컨설팅 분야

	경영체		관련공무원		전문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산	-	-	1	2.6	-	-	1	.6
제조 · 가공	16	17.8	7	17.9	7	24.1	32	18.6
판로 · 유통 · 체험	46	51.1	26	66.7	16	55.2	97	56.4
홍보 · 마케팅	14	15.6	4	10.3	4	13.8	25	14.5
사업화지원	14	15.6	1	2.6	2	6.9	17	9.9
합계	90	100.0	39	100.0	29	100.0	172	100.0

21) 2014년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예비인증사업자를 2회에 걸쳐 56개소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 <표 Ⅳ-11>의 6차산업화 활성화 요인의 척도를 살펴보면 '판매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4.43,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4.38, '기술・자본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4.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케팅·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등 높게 나타난 요인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매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마케팅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뒤쳐져 판매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 분야에 맞는 컨설팅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R&D 지원 등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Ⅳ-11> 6차산업화 활성화 요인

항 목	5점 척도	경영체	공무원	전문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3.66	3.55	3.79	3.79
창업보육센터 활성화가 필요하다	3.62	3.52	3.87	3.59
은퇴전문가 기술경영을 활용해야 한다	3.52	3.54	3.64	3.17
단체급식 및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야한다	3.86	3.90	3.97	3.69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3.79	3.85	3.69	3.62
기술·자본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4.27	4.40	4.03	4.07
판매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4.48	4.48	4.49	4.38
6차산업화 협의체구성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3.98	4.00	3.92	4.03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	3.74	3.84	3.54	3.72
공동사업 추진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4.09	4.16	4.08	4.10
후계영농인력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3.88	3.99	3.79	3.69
시군 6차산업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02	4.14	3.82	3.83
마케팅·홍보 지원이 필요하다	4.43	4.44	4.38	4.38
연구개발지원이 필요하다	4.25	4.36	4.05	4.17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4.38	4.39	4.31	4.48
소규모 식품가공 시설기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3.95	4.14	3.54	3.93
농가민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3.65	3.84	3.38	3.41
식품안전성확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3.93	3.91	3.92	4.03
농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품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4.05	4.02	4.03	4.14
여성·고령층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3.85	3.79	3.84	3.90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91	3.93	3.92	3.79
마을반찬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46	3.52	3.38	3.41
시군별 향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08	4.30	3.87	3.69
1시군 1식품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63	3.67	3.54	3.69
친환경 안전 생산지원 시설 등 구축이 필요하다	3.92	3.90	3.82	4.14
6차산업화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3.92	3.99	3.82	3.93
산업화 아이템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4.12	4.21	4.03	3.97
6차산업화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4.19	4.24	4.15	4.10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4.25	4.22	4.36	4.10
관련주체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	4.15	4.09	4.23	4.21
6차산업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4.10	4.20	3.90	4.10
평 균	**3.97**	**4.02**	**3.91**	**3.91**

자료 : 전남 농업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자료를 재구성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요약 및 시사점

설문조사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차산업화의 목표로 제조·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6차산업화의 과제로는 도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차산업 사업자 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분야별 과제로 1차산업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용절감이 요구되므로 지역주민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의 안정화 및 균일한 품질의 생산 등의 공급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2차산업은 가공·제조 기술이 열악하므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및 자금조달이 중요하며, 3차산업은 제품의 판로개척과 홍보 및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6차산업화 추진의 장점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차산업화의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추진사업으로 열악한 가공 및 제조관련 시설지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부지원정책으로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과 6차산업화 경영체의 상품의 홍보·마케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의 판로 및 유통에 대한 체험관광과 연계 등이 취약하므로 체험과 유통·판매를 연결하고, 맞춤형 홍보·마케팅 컨설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애로 해소가 가장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마케팅 및 홍보가 중요하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자금조달 해소, 고부가가치 창출 연구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전남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남의 6차산업화 관련 경영체들의 애로사항 조사 및 우수사례와 설문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종합하면, 1차산업 부문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공급·생산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균일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령농, 소농 등 농업인 단독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농가 및 농업인들에게 직거래, 계약재배를 통해 6차산업의 참여농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생산관련 인프라구축 및 원재료 운영자금 조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2차산업 부문은 공동가공시스템 구축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가공 및 열악한 시설의 현대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재원조달, 각종 규제완화 및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3차산업 부문은 6차산업화 사업자간의 열악한 홍보·마케팅의 공동 추진으로 판로개척 및 규제완화와 원활한 재원조달 해결이 중요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1. 규제완화 및 철폐를 통한 활성화

1·2·3차 산업별 규제완화 및 철폐로 경영의 다각화를 꾀하고 6차산업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제품개발 및 설비기계 설치, 생산·체험 등의 인허가 및 시설기준, 제조업 등록, 문화재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소량·다품목 제품개발이나 생산·체험의 경우 인허가 및 시설기준 완하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부분이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이 시설 및 일자리 창출로 재투자될 경우 부가세 감면이나 농촌관광 관련 규제완화로 농촌휴양단지의 면적기준을 완화, 농촌민박 아침식사 제공 등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및 사업 활용도 제고

1·2·3차 산업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6차산업화 경영체들이 소규모 형태이고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등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문교육이나 체험장 운영자금, 체험관광 및 힐링체험 병행에 따른 시설 자금 및 직매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저리)융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위해 건강기능식품개발, 디자인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대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를 위해 농식품부 및 도 차원의 6차산업화 관련 자금지원사업 및 지원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6차산업 사업자 육성자금지원, 6차산업화 전문펀드, 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의 활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6차산업 관련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육성, 마을반찬 및 전통식품산업 육성사업,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등의 자금활용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6차산업 수익 창출 모델 개발 및 육성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6차산업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농공상 연계 6차산업화로 농촌과 힐링을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농촌이 힐링과 만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트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힐링 비즈니스가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농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전통음식,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의 자원을 힐링과 결합시켜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다. 농공상융합 힐링푸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치유·안정의 농촌관광모델 개발, 건강기능성식품, 전통식품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다각화[22]를 통한 6차산업 수익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농장, 농촌체험관광,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의 사업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다각화와 연계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유해야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촌체험관광, 농가레스토랑을 동시에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직거래 네트워크 및 도농교류,농산촌 유학 등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향토·전통음식,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 등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6차산업화는 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및 운영 노하우가 요구된다. 개별 농가나 개별법인 단독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6차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량이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주체들과 관계 유지 및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전한 비즈니스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농간 유통 외식, 문화, 마케팅, 농촌체험관광 등과 연대 및 제휴뿐만 아니라 지역내 로컬푸드,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등을 연계하여 지역관련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22) 사업 다각화의 기본 개념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로 하나의 자원을 하나의 사업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취지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맞춤형 컨설팅 및 판로지원

판로확보 및 신제품 생산, 기계·장비 운용 등의 규제완화, 자금조달, 홍보·마케팅에 대한 애로사항 중심의 사업자 맞춤형의 심화된 컨설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판로 및 신시장 개척에 대한 정보제공, 홍보에 필요한 광고 및 제품디자인 등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또한 판매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로의 연결 및 마트 입점 등에 대한 정보·상담 제공이 필요하다.

6차산업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조사 및 청취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고, 전문가 pool 구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5. 6차산업 창업 리더양성 및 미래성장산업화

후계농업경영인, 전통식품명인·장인 등을 6차산업화 선도인력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지식농업인이나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 등을 6차산업 창업에 관심을 유도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나 젊은 세대의 농촌거주 증가세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창업 지원 및 교육 강화로 6차산업화의 창조적인 인력으로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6차산업화는 미래 성장산업화의 필수요건이다.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에 ICT를 융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ICT를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물류관리 및 이력관리, 전자상거래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장 요약 및 결론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6차산업화의 목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켜,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에서 6차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 농업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았으며, 전남의 ‘6차산업화 우수사례’로 선정된 3곳을 소개하였다. 또한 전남지역 6차산업화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6차산업 관련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우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의 성공요인은 ‘차별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보성군의 ㈜보향다원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개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발을 넓혀 ‘VIP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고흥군의 ㈜에덴식품은 친환경 원료 재배와 인근 재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특히 ㈜에덴식품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 사회적 기업인 ㈜명하햇골은 천연염색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여 고유한 쪽의 효능 및 제품개발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체험으로 인해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제품홍보까지 함께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체험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켜 숙박, 힐링 등과 연계시키는 농촌관광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남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전남 예비인증 사업자들의 유형, 자본금, 매출액, 종사자 등과 애로사항 청취 결과를 분석하였다.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의 주로 애로사항으로 시설자금지원, 홍보·마케팅, 규제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체험・체류형 관광과 농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인허가 및 시설기준, 제조업 등록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인허가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대상자를 기업인, 관련공무원, 전문가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정책에 대한 문항은 세 그룹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개의 설문(지자체 정책과 농식품부 추진사업 관련)에서 상이한 의견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네 개의 설문은 (1) 2차 산업의 과제에 대한 문항, (2)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 (3) 전남도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그리고 (4) 농식품부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 등이다. 이는 6차산업화 정책목적에 대한 의견은 같으나, 실질적인 방법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선적 추진과제와 농식품부 추진사업에 대한 문항은 6차산업화 기업인과 관련공무원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 그룹간의 입장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6차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기업에서는 홍보·마케팅, 창업자금지원 등 직접적으로 소득창출에 연관된 지원을 원하고, 관련 공무원은 6차산업화 집적단지 조성이나 경영컨설팅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그룹간의 의견이 다른데,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그룹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관련공무원,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 등을 마련하여 그룹 간 이견을 합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 활성화 요인을 5점척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분석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과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6차산업화 활성화 요인 중에서는 판로개척, 시설자금지원, 홍보·마케팅의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지원사업 및 6차산업화 사업자 선정 등을 잘 매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선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차산업화는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지자체의 판단과 기본계획 등으로 성과측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도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농가나 농촌, 경영체 등에서 현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분야에 맞는 지원이나 정책을 펼쳐 각 부분에 들어맞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자금지원의 경로 매치, 시설 및 지원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6차산업을 시행하는 경영체 및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즉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철폐,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모색 및 활용도를 높이고, 6차산업의 수익모델 발굴 및 육성, 맞춤형 컨설팅, 6차산업 창업 및 리더양성, 홍보・마케팅 황성화를 통한 판로지원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6차산업화 활성화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 및 주성분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 한계점에 대응하여 요인분석 및 주성분분석 등을 고려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승진(2012), 「일본 농산어촌 6차산업화 최근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 JDI Focus, 142호 : 1-9, 제주발전연구원.

_____(2013), 「제주지역 농업의 다각화 6차산업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권용덕(2014), 「농업의 6차산업화와 추진과제」, 경남발전, 133호 : 57-70, 경남발전연구원.

김용규(2014), 「농업 6차산업화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과제, 농협경제연구소.

김태곤·허주녕(2011),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2012), 「일본 히로시마현 세라정의 6차 산업화 추진사례와 의의」, 세계농업 제 14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완(2012),「AHP적용에 의한 함양지역 품목별 특성화 유형의 선정」, 농업경제연구 53(2), 한국농업경제학회.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_____(2014),「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_____(2014),「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_____(2014),「6차산업 창업매뉴얼」.

_____(2014),「6차산업화 우수사례집」.

_____(2013),「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진흥청(2014),「6차산업 유형별 사업매뉴얼」.

박시현(2013),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 KREI 농정포커스, 6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변우정(2013), 「농업의 6차산업화의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행정석사학위논문.

서윤정(2014), 「우리나라 6차산업 전개과정과 추진 전략」,2014 농업연감, 농축산신문.

_____(2013), 「6차산업 융복합혁명」, HNCOM.

서윤정·이병오·이진홍(2011), 「우리나라 농상공 연대의 현황과 과제」, 농촌관광연구, 18(2) : 145-161, 한국농촌관광학회.

서윤정・장덕기(2014),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 및 활력증진을 위한 6차산업화 전략”, 『녹색 전남』, 제83호, 전남발전연구원.

송미령·민자혜(2013),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 78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오(2012), 「일본의 6차 산업화 전개방향과 과제」, 동북아농정연구포럼발표문.

이병오·서윤정(2011), 「일본의 농촌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3(4) : 34-42,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영진(2014), 「농업의 6차산업화 유형별 사례 분석」,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논문.

이진홍·서윤정(2013), 「지역특화품목 성장잠재력 분석 및 지원모델」, 2013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장덕기(2014),「生・消 연계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전략」, 정책연구 2014-05, 전남발전연구원.

_____(2013),「전남 로컬푸드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3-12, 전남발전연구원.

_____(2013), “일본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 추진사례와 시사점”,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

_____(2012), “전남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통권 제285호.

전라남도 농림식품국(2014), 「2014 농정기본통계」.

정현희(2013), 「유럽의 다기능 농업 사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CDI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최이석(2013), 「6차 산업의 경쟁력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2014),「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小林茂典 著, 이병오 譯(2012), 「일본의 6차 산업화 전개방향과 과제」, 세계농업 제143호, 특집 2012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발표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林辛君(2013), 「대만의 6차산업화 정책동향과 지역사례」,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朱俊峰(2013), 「중국 농업산업화경영의 정책동향과 지역사례」,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林水産省(2010),「平成23年度未來を切り拓く6次産業創出總合對策予算概算要求の概要」.

農林水産省(2011),「農商工連携施策利用ガイドブック」.

農林水産省(2010),「地域を活性化する農商工連携のポイント」.

民主党農林水産政策大綱(2008),「農山漁村 6 次産業化ビジョン」.

David Groenfeldt(2009), 「Multifunctional Agricultural Policies and Practices in Europe and Relevance for Monsoon Asia」, Water and Culture Institute.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홈페이지 http://www.6차산업.com/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남농업 6차산업화지원센터 내부자료.
農山漁村の6次産業化：http://www.maff.go.jp/j/soushoku/sanki/6jika.html

Collection @ chosun